

Asling Vita Scenario

idx	작성자	작성일자	작업 내용
1	박천웅	2024-03-16	Chapter 1

Index

Index.....	2
Chapter 1(집).....	3
Chapter 2(골목길)	20
Chapter 3(포탈홀)	20

Chapter 1(집)

1. 도심지 까지 차로 20분정도 걸리는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목조 저택. – 낮

화창한 하늘아래 하얀 목조 집이 위치해있다. 집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쩐지 당혹스러워 하는 성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전화기 너머 상대에게 어쩐지 찢찢매면서 고개를 숙여 가며 통화하는 남성이 보인다. 결국 눈을 질끈 감은 남성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그런 남성을 물끄러미 올려다보는 소녀. 소녀의 품에는 돛자리(picnic blanket)로 추정되는 천조각이 깔려진채 들려있다.

루이스: 오, 에이시... 정말 미안하구나

남성의 눈이 돛자리를 향한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지만 이내 안정을 되찾는다. 대신 그 속에는 미안함이 가득 담겨있다.

루이스: (자신의 알통을 보여주며)에이시, 너도 알다 싶이 지금은 우리 집이 그리 여유롭진 못하구나. 그래도 파파가 능력이 좋아서 말이야.

남성은 괜히 자신의 알통을 보여주면서 짐짓 유쾌함을 표현하고자 애쓴다.

루이스: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회사에서 돈을 더 주면서라도 파파에게 일을 맡기고 싶다고 하는구나. 이해해 줄 수 ... 있겠니?

남성이 마자막 대사를 뺀기 전 차마 아아와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한다.

살며시 소녀의 어깨에 얹은 남성의 손이 미약하게 떨린다.

소녀는 그런 손을 잠깐 보다가 다시 남성의 얼굴을 올려다본다.

소녀의 시선은 예전보다 더 피로해 보이는 남성의 얼굴에 고정되어있다.

두꺼워진 다크서클과, 살짝 충혈된 눈동자, 조금 늘어난 것 같은 눈 밑 주름들 까지.

남성은 이내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본다.

루이스: (겉옷을 챙기면서 다급하게 움직이며)오, 벌써 시간이... 미안하다 에이시, 그래도 파파가 사랑하는거 알지?

급하게 겉옷을 챙기고 모자를 쓰면서 남성이 소녀에게 말을 건넨다.

다만, 소녀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뱉는 대사는 스스로도 자신의 물음에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거 같아서일까?

에이시: (애써 실망감을 티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간신히 댄다. 그럼에도 살짝 떨리는 음성으로)네... 물론이죠 파파

소녀의 대답에 순간 움찔하는 남성.

망설이는 듯 현관문을 나서는 손이 방향한다.

그러나 이내 현관문을 열고 길을 나선다.

루이스: 그래,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옆집의 아만다씨에게 오늘 하루도 부탁드립니다고 연락드리마. 이 시간에 자주 돌봐주셨으니 오늘도 가능 하실 거다.

남성의 입에 올라온 '아만다'라는 이름에 이번엔 소녀가 움찔한다.

소녀의 눈동자에는 미약한 거부감과 공포심이 살짝 묻어나왔지만 이내 포기하며 받아드린다.

그런 소녀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남성은 다시금 자신의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바쁜 걸음을 내딛는다.

이윽고 현관문이 닫힌다.

에이시: ... 조심히 다녀오세요, 파파

차마 나서는 남성을 바라보면서는 내뱉지 못한 말이, 닫힌 현관문을 보면서 흘러나온다.

진심이기에 이렇게 밖에 말 할 수 없었다.

소녀는 작게 한숨쉬고는 품에 들고 있었던 돗자리를 바라보았다.

에이시: 기대... 했었는데.

아쉬움과 미련이 뚝뚝 흘러나오는 눈으로 돛자리를 바라본다.

이내 원래 있어야할 자리로 이동하여 가져둔다.

현관 복도를 지나 거실의 한켠 언제든지 꺼내어 쓸 수 있도록 벽난로 옆 의자 뒤편에 내려놓는다.

- 뚝.뚝.뚝

규칙적이고 정갈한 소리가 현관문에서 들려온다.

소녀는 흠칫 놀라 현관문으로 달려나간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하고 옷 매무새를 고친뒤 조심히 현관문 앞에 선다.

에이사: 이곳은 루이스 비타의 집입니다. 누구이신가요?

아만다: 루이스 비타의 집을 방문하게된 아만다 브라운입니다.

예상했던 목소리에 소녀가 현관문을 연다.

과연 문 앞에는 간간하고 엄격한 느낌을 주는 노부인이 소녀를 내려다 보고 있다.

소녀가 자연스럽게 문 앞에서 비켜서자 노부인은 당당하게 집에 들어서선 문을 닫는다.

꽃꽂한 자세를 유지하는 노부인은 문이 닫히기 무섭게 날카로운 시선으로 집 상태를 훑으며 소녀를 바라본다.

아만다: 나들이를 나가려 했다 들었는데, 스스로를 가꾸지도 못하는구나.

노부인의 시선이 소녀의 부스스한 머릿결과 아직 갈아입지 못한 잠옷을 바라보며 이맛살을 찌푸린다.

그 시선에 소녀가 절로 움츠려든다.

아만다: (손가락으로 소녀를 가리키며)당장 그 더러운 머리와 몸을 닦지 않는다면 옷을 전부 벗겨 쫓아내주마!

노부인의 일갈에 소녀가 급하게 자신의 방으로 향한다.

2층에 위치한 소녀의 방에서 갈아입을 옷(나들이를 위해 미리 준비한)을 들고 화장실로 향한다.

샤워기 소리가 물을 맞는 소녀의 얼굴이 나온다.

거울속 소녀의 모습이 비춰진다.

지금 보다 더 앳되어 보이는 소녀는 긴 생머리를 갖고 있다.

소녀의 뒤에는 소녀와 닮은 여성이 웃으면서 그 머리를 감겨준다.

소녀는 간지럽다는듯 움직이면서도 얼굴 한가득 행복한 미소를 띤다.

그러나 곧 물이 머리위로 쏟아지면서 눈을 감고 뜨면, 이제는 혼자서도 쉽게 감을 수 있는 단발 머리와 무표정한 소녀의 얼굴만이 자리하고 있다.

소녀는 애써 그 모습을 직면하기 싫은듯 거울로부터 시선을 돌린다.

그 모습이 아까전 그녀의 아버지가 소녀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모습과 똑 닮아있다.

샤워와 옷 갈아입기를 끝낸 소녀가 거실로 내려온다.

노부인은 거실과 연결된 식당에서 소녀를 기다리고 있다.

노부인이 가져온 바구니가 식탁에 놓여있다.

아만다. 네 나이가 벌써 9살이다. 그럼 숙녀다운 몸가짐을 바로할 필요가 있는법

노부인은 어느새 손에 쥔 가느다란 막대기로 소녀의 이곳 저곳을 찌른다.

아만다. 내가 몇 번이나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정리하질 못하는구나!

소녀는 고개를 숙인채 찢린 부분들의 매무새를 정돈하면서 슬쩍 노부인의 눈치를 본다.

여전히 찡그려진 이맛살로 소녀를 바라보는 시선과 마주하자 얼른 다시 시선을 내린다.

아만다. 쫓

그런 소녀의 모습이 못 마땅한건지 노부인은 혀를 차면서 바구니 안에 내용물을 꺼낸다.

조그마한 호밀빵 두 덩이가 나온다.

아만다. 너의 아버지께서 급하게 호출하는 바람에 내 스케줄이 엉켰다. 내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이쯤만 하고 떠나마. (빵을 식탁위 접시에 내려놓으며) 점심은 이정도면 충분하겠지? 오후에 다시 한 번 보러 올 테니, 그때도 지금처럼 단정한 상태가 아니라면 다음에는 방에 하루종일 방에 가둬둘줄 알아라!

노부인의 짜증 섞은 말에 묵묵히 듣고 있던 소녀는 금방 떠난다는 소리에 움찔 떤다.

노부인의 시선을 피해서 안도의 한숨을 살며쉬 내신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발견한 노부인이 크게 혀를차자 다시 움찔하며 곳곳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노부인은 반쯤 으르렁 거리는 발걸음으로 소녀를 뒤로한채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진이빠진 소녀가 자세를 푼다.

이내 식탁에 위치한 빵을 보곤 주방으로 향한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어 식탁에 컵과 함께 배치한다.

빵을 손으로 찢어서 한 입크기로 만든 소녀가 조용하게 식사를 시작한다.

4명은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탁에, 홀로 앉아 먹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빵을 씹는 속도가 느려진다.

참을 수 없는 외로움과 서러움이 몰려오는 듯 소녀의 눈망울이 축축해진다.

잠시 고요함 속에 울리지 않는 흐느낌이 녹아들며 소녀의 어깨가 들썩인다.

식사를 마친 소녀가 거실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본다.

화창한 하늘의 햇빛이 거실로 들어오며 소녀의 발을 간지럽힌다.

- 툑. 툑. 툑.

정확한 박자감에 따른 노크음이 가볍게 들려온다.

소녀는 깜짝 놀라서 현관문 방향을 바라본다.

그녀의 얼굴 가득 의문이 차오른다.

한동안 소녀가 환청인지 헛갈리는 얼굴로 현관문을 보고 있자니 다시금 노크소리가 울려퍼진다.

- 툑. 툑. 툑.

마치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것처럼 너무나 똑 같은 소리가 퍼진다.

소녀는 정신을 차리고 현관문 앞으로 나간다.

에이사: 이곳은 루이스 비타의 집입니다. 누구신가요?

A: 안녕하십니까, 루이스 비타의 집에 방문한 A입니다.

현관문 넘어로 처음들어보는 사내의 목소리에 소녀의 어깨가 한층 움츠려든다.

긴장한 소녀가 또박또박 학습된 대사를 출력해낸다.

에이사: (대사를 읽듯이 딱딱하게)지금 아버님께서서는 부재중 이십니다. 아버님께 용무가 있으시다면 다음 기회에 방문해 주세요"

무사히 대사를 마친 소녀가 내심 뿌듯한 표정을 짓는 사이에도 현관문 밖의 인기척이 사라지지 않는다.

A:(차분하면서도 조금한 느낌으로) 오 에이슬링 비타양, 저는 당신에게 볼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 관한 일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입에서 나온 소녀의 이름에 소녀의 눈동자가 커다랗게 변한다.

어딘지 모르게 바짝 메말라 있는 듯한 남성의 목소리.

어쩐지 집안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처럼 소녀는 소름 돋는 기분을 맞이한다.

절로 자신의 양팔을 감싸 안으면서 현관문으로부터 뒷걸음질 친다.

에이사: (긴장과 공포로 떨리는 목소리로)죄... 죄송하지만, 저는 모르는 분과는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잔뜩 긴장한 소녀의 목소리가 전해진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는다.

소녀의 떨림이 조금씩 커진다.

A: (중얼거리듯) 하아, 정말이지 수지가 안 맞는 일이군. 이 이상 실랑이는 비효율적이야.

웅얼거리는 말이 들리기 무섭게, 소녀의 시야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다.

세상이 전체적으로 분해되었다가 조립되는 듯한 형상이 그려진다.

흔들림이 잦아든 현관 앞에는 회색의 신사가 자리잡고 있다.

집 안에 나타난 회색 신사는 온통 잿빛의 양복을 입었으며 잿빛의 패도라를 깊게 눌러쓰고 있다.

얼굴은 어쩐지 재대로 식별이 되지 않는다.

눈 코입이 없는 밋밋한 가면을 쓴것만 같다.

소녀는 화들짝 놀라서 채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자리에 굳어버린다.

그런 소녀를 본 회색신사가 입을 연다.

A: (품속에서 명함을 꺼내어 건내주며) 처음 뵙겠습니다. 에이슬링 비타양, 저는 당신의 아빠되는 사람. 루이스 비 타씨의 시간을 관리해주는 시간관리 주식회사의 TimePlanner A라고 합니다.

소녀는 굳은 채로 내밀어진 명함을 뻔히 바라보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회색신사는 당황해하는 소녀의 모습따윈 개념치 않다는듯 그녀를 지나쳐서 거실로 들어선다.

이내 마땅한 탁자가 없음을 느낀 회색신사는 식당의 탁자로 이동해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어 세팅한다.

A: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방문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녀는 머뭇머뭇 회색신사를 따라서 식당으로 이동한다.

회색신사는 노트북 화면을 키고 이리저리 조작하더니 그래프가 그려진 화면을 띄운다.

A: (압박하는 어조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슬링 비타양, 당신은 당시의 아빠인 루이스 비타의 시간관리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프가 그려진 화면의 특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콕 짚는다.

그곳에는 우상향을 그려야하는 주황색 그래프와 다르게 평탄하게 이어지는 보라색 그래프가 존재했다.

A: (살짝 짜증이 섞여 있지만 고객상담사와 같은 톤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객인 루이스씨가 바라는 만큼의 자본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시간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그에겐 그가 추가적으로 업무를 맡아 수행하여 평일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당신과의 약속을 위해 우리가 정해진 스케줄을 따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이내 다른 시간대의 그래프도 보여준다.

앞서 나온 그래프들처럼 주황색의 선이 보라색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A: (이를 악 물고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그는 좀 더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해서 저희 회사와 계약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니는 은행에서도 업무적인 성과로 서서히 인정받고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에서 계산한 이상적인 수치에 비해서 아직 까지도 미진한 구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설명하던 회색신사가 소녀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강력한 시선이 느껴지는 듯하다

소녀 또한 화면을 바라보다 회색 신사의 얼굴을 바라본다.

인간을 흉내내는 듯한 이형의 괴물로부터 느껴지는 불쾌한 혐오감에 소녀가 몸서리친다.

A: (단정짓는 어조로)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그 원인이 당신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회색신사의 허리가 숙여지면서 소녀에게 접근한다.

공포심으로 굳은 소녀와 회색인간의 상반신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에이시: (떨리는 목소리로) 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A: (짜증스러운 감정이 점점 진해지면서) 현대에 있어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자본이죠. 루이스씨는 더 많은 자본 소득을 위해서 기꺼이 저희 회사와 계약을 맺은겁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그에게 권고한 플랜을 100%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계약 위반행위입니다!

회색인간의 어조가 거칠어지면서 흥분하는 느낌이 감돈다.

회색인간과 소녀 사이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진다.

A: (으르렁 거리듯) 그리고 그가 권고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에는 당신이 있었습니다

회색인간이 다시 허리를 펴며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는 자신의 가방으로부터 팬 한자루와 서류 한장을 꺼내어 탁자에 내려 놓는다.

그리곤 소녀의 앞으로 내밀어 보게 만든다.

소녀의 시선이 내밀어진 서류로 향한다.

A: (한결 진정한 목소리로)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에게 2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를 지금 보시는 서류에 서명하고, 당신도 저희 회사의 고객이 되는 길입니다. **(자부심이 넘치는 목소리에 웃음을 섞어가며, 상대적으로 열등한 이에게 말하는 우월감을 담아)** 우리 회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회사로, 수천만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고객으로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A: (전도를 하는 광신자처럼) 우리는 당신이 살면서 낭비하는 모든 순간의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화해드립니다. 그 끝에서 당신은 큰 자산과 행복을 얻어 낼 수 있습니다.

텐션이 올라간 것처럼 회색신사는 자리에 일어나 양팔을 펼치며 일장 연설을 한다.

어쩐지 홈쇼핑의 쇼 호스트 처럼도 열성적인 광신도 처럼도 보인다.

A: 자본 주의의 현대 사회에서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사지 못한다면 그것은 돈이 부족하다는 뜻일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쏟아야 합니다.

회색신사가 자신의 가방으로부터 또 한 장의 서류를 꺼낸다.

소녀의 눈앞에 있는 서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곳에는 소녀의 아버지의 이름이 휘갈겨 쓰여져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소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린다.

서류는 복사된듯 서명 옆의 도장이 검은색으로 프린팅 되어있다.

A: 루이스씨 또한 미래에 찾아올 행복과 여유를 위해서 이에 동의하셨습니다. 현재의 그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소녀의 머릿속으로 장면이 스쳐지나간다.

뉴스에서 연일 쏟아지듯 나오는 리먼브라더스라는 이름.

그 뉴스를 바라보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충혈된 눈으로 정말하는 아버지.

우편함에 가득 쌓이던 편지.

지친 눈으로 편지를 뜯어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망설이는 소녀의 앞에 회색신사가 팬을 들어 소녀에게 내민다.

침묵과 함께 찾아오는 압박감이 소녀를 짓누른다.

에이사: (주저하는 목소리로) ... 서명을 하게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오,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저 저희가 권고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일상생활을 보내면 됩니다.

소녀의 질문이 마음에 들었는지 회색신사의 앉는 자세가 한결 편해진다.

등을 의자에 기대며 말을 잇는다.

A: 에이슬린 양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한다고 곧 바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우리 회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아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면됩니다. 저희는 당신이 아낀 시간만큼을 가져가 돈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에이사: (놀란 눈으로 기대섞인 어조로) 돈을 ... 주신다고요?

A: (과장되게 이야기하듯) 오, 돈으로 바꿔 드린단 표현은 저희가 돈을 직접적으로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가 맞습니다.

회색신사는 컴퓨터를 조작해서 여러 사진들을 보여준다.

A: (컴퓨터 화면의 사진을 슬라이드로 넘기며) 이를 테면, 에이슬린 양은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집중에서 듣거나, 쉬는 시간에 해당 내용을 복습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가볍게 장난을 치는 등 해당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척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공부를 하게 된다면 분명 당신은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등한시한다면 하루에 간신히 식사만 할 수 있는 돈벌이인 일용직들만 전전할 수밖에 없죠. 그럼 하교를 한 다음에는 어떨까요? 당신이 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집 앞 마당을 건다가 돌멩이를 줍는 일? 해당 돌멩이가 보석 원석이라면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겠지만 그럴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집에서 인형과 쓸데없는 대화를 하는 일? 당신이 홀로 집에서 멍하니 보내는 그 순간순간들은 그 자체로 당신의 아빠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순간마다 당신을 걱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마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값싸지만 오랜 시간 당신의 공부를 도와줄 학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모든 시간을 학원이 요구하는 시간에 맞춰서 행동하며 일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당신을 홀로 뒹아 해서 신경을 써야 했던 워렌씨도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소녀는 펜을 쥐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럴수록 회색인간은 재촉하듯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린다.

일정한 박자감에 소녀의 심장 박동도 같이 덩달아 뛰는 느낌이 든다.

그때 소녀의 머릿속으로 한 장면이 스쳐지나간다.

(에이시 엄마): 에이시, 에이시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소녀는 엄마의 품에서 응석을 부리고 있었다.

소녀는 엄마의 물음에 고개를 들고는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무언가를 말한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에이시 엄마): 엄마는 에이시가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행복은 지나가면 잡을 수 없고 미루면 멀어지기만 한단다. 기억하렴 에이시, 지금 이 순간 순간을 가장 행복 할 수 있게 노력한다면 너는 언제나 어떤 모습이던, 어떤 사람이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란다.

소녀의 손에 들린 펜의 떨림이 잦아들었다.

마치 한동안 매혹에 빠졌던 것처럼 흐려졌던 눈동자가 빛을 되 찾는다.

소녀의 모습이 맘에 들지 않는지 회색인간은 이야기하면서 들어올렸던 팔을 내리면서 소녀에게 다가선다.

그런 회색인간의 모습에 소녀가 잠시 움츠렸지만 이내 입을 열었다.

에이시: (떨리는 어조를 애써 다잡으며) 다른 하나는 뭔가요?

A: (손목에 착용한 스마트 워치를 확인하면서) ...

회색신사는 바로 대답해주지 않는다.

어쩐지 이전보다 조금한듯, 초조한듯한 느낌이 든다.

숨을 쉬는 소리가 거칠어진다.

소녀는 조금씩 뒷걸음질 치면서 회색신사와의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다.

A: (깊게 한숨을 쉬며) 남은 하나는 ... 음, 이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방안입니다만.

회색신사의 말에 서서히 감정이 흘러 넘치기 시작한다.

소녀는 오늘 아침에 아빠가 통화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유사한 감정임을 알 수 있었다.

다급함과 초조함 속에서 당황과 짜증에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느낌.

A: (손목의 스마트 워치를 바라보다 이내 결심한듯 팔을 내리며) 에이슬린양, 당신... 아니 **(매우 차가운 어조로)**너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지.

사내의 형상 위로 아지랑이가 일어난다.

아지랑이는 소녀에게 회색신사가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

무언가 잘못된걸 안 소녀는 회색신사가 다가오는 만큼 뒷걸음질을 치며 거리를 유지한다.

A: (혼잣말하듯이 중얼거리면서)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다. 나와 계약한 고객들이 생각보다 일찍 죽어버렸어, 기껏 새로 계약한 고객은 예상치에 훨씬 못미치는 시간만을 생성하고 있지.

최소한의 존중도 버려버린 회색신사의 얼굴이 조금씩, 붉게 물들어 가는 듯하다.

젯가루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불씨처럼

A: (점점 격앙되는 어조로) 현실의 인간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은 나의 시간을 지나치게 소비해야해서 설득하려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꼬마아이에게 이론적인 설득이 먹힐리가 없는데! 넘쳐나는 시간을 그저 낭비할 줄 밖에 모르는 멍청한 존재에게 뭘 기대한거지! 괜히 비용을 아끼려다가 내 소중한 시간을 벌 써 10분 이상 낭비해야했다!!! 10분이나!!!!

회색신사의 어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고향에 이르렀다.

절규와 같은 회색신사의 얼굴은 이제 명확하게 붉은 그물이 그려지며 이글거리는 아지랑이와 함께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소녀는 그 얼굴을 보며 아빠가 가끔씩 밤에 몰래 밖으로 나가서 피웠던 담뱃불이 연상된다.

A: (소녀에게 점점 다가가면서) 자, 이리 오렴, 순순히 사라져서 나에게 시간을 줘!!!!!!

에이사: (화들짝 놀라서 뒤돌아 도망치며) 까악!!!

회색신사가 마치 짐승과도 같이 소녀에게 달려든다.

소녀는 바로 뒤를 돌아서 현관으로 도망친다.

그러나 짧은 다리로는 성인인 회색인간에게 금방 잡혀버린다.

현관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를 이용해서 소녀가 달려나간다.

급격한 방향전환이 회색신사와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현관에 부딪힌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괴성을 지르며 소녀를 추적한다.

주방에 위치한 중앙의 탁자를 이용해서 회색신사의 손길을 피한다.

소녀는 다급하게 다시 식당, 거실을 이용해서 빠져나간다.

지나치면서 의자들을 넘어뜨려 조금이나마 회색신사의 속도를 늦춘다.

그런 소녀를 바라보며 회색신사가 외친다.

A: (악에 바친 목소리로) 모두 너 때문이야! 네 아빠가 저 지경이 될때까지 돈을 벌기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그렇게 모은 시간을 우리에게 바치는 이유도! 그럼에도 우리와 약속한 시간을 다 주지 못하는 이유도!!!!

회색신사의 외침에 소녀가 움찔하지만 계속해서 도망친다.

뒤를 돌아보면 붙잡힐까 무서워서 앞만 보며 나아간다.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지만 어쩔일인지 돌아가지 않는다.

빠르게 포기하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간다.

A: (악에 바친 목소리로) 너만 없어지면 모든게 해결된다!!! 네 아빠는 너를 생각할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바칠거야!! 나는 그럼 그 신감قم 더 살수 있어!! 너 같은 멍청한 하등생물 따위 때문에 내가 죽을 순 없지, 난 살아야만

한다고!!!!

회색 남자의 절규와 함께 벌어지는 단어의 수준이 낮아진다.

그러나 동시에 소녀가 이동할 곳이 보이는 것처럼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이대로라면 곳 잡혀버린다.

소녀는 눈을 질끔 감고 2층 난간에서 거실로 뛰어내렸다.

소파에 떨어져 충격을 완화하곤 그대로 굴러 다시 도망친다.

그러나 소녀의 앞에 이미 회색신사가 떨어지고 있었다.

소녀의 눈에 절망이 인다.

A: (참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인 목소리로) 아... 안돼...

어찌된 일인지 회색인간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딱딱해진다.

관절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웬지 잿가루가 흘러나오는 것 같다.

소녀는 그 기회를 틈타 소파 뒤로 몸을 숨긴다.

회색신사의 얼굴은 붉은 기운이 꺼져가면서 새하얗게 타버린 잿가루마냥 점차 균열이 가며 부스러지기 시작한다.

A: (꺼져가는 불꽃과 같은 목소리로) 시... 시간이 필요...ㅎ ...

회색신사의 몸이 부스러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재를 뭉쳐 만든 조형물이 다시 재로 돌아가는 듯하다.

미처 단어를 다 뱉기도전에 얼굴이 완전히 먼지가 되어 분해된다.

회색신사의 전신이 잿가루마냥 흩어지며 공기중에 녹아 흩어지는데는 그리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소파 뒤에서 그 충격적인 장면을 바라보던 소녀가 조심스럽게 회색신사가 사라진 자리로 향했다.

회색신사가 가져왔던 노트북, 가방, 서류들 모두가 신사와 함께 먼지가 되어 공기중에 녹아든다.

남은건 오직 그가 손목에 착용했던 스마트 워치 하나뿐이다.

소녀는 이런 형태의 물건을 본 기억이 없다.

그나마 비슷한거라면 아빠가 착용하고 다니던 손목시계뿐이다.

그러나 이 물건은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돌아야할 자리에 TV와 같은 검은 화면만이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스마트 워치를 손에 들었다.

왜 그러는지 소녀 본인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소녀는 무의식적으로 해당 기기를 자신의 손목에 가져다 대본다.

성인 팔목에 맞는 크기의 알맹이는 소녀의 팔목엔 지나치게 커보여 이상하다.

그러나 그 순간 스마트워치가 자동적으로 소녀의 팔목을 휘감아 묶어버린다.

깜짝 놀란 소녀가 팔을 휘둘러보지만 이음새 하나 없이 소녀의 팔목을 감아버린 스마트 워치는 떨어질 생각을 않는다.

고통을 감수하고 다른 한쪽 팔로 스마트워치를 밀어내기 위해서 건드는 순간

소녀의 시야를 가득 채우는 빛이 세계를 물들인다.

금 빛으로 물든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소녀는 너무 놀라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아니 매우 천천히 움직여진다.

에이시: '시간이... 느려졌다고?'

소녀가 속으로 생각했다.

의식의 속도는 그대로인데 그외 세계의 모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

동시에 검은 화면이었을 뿐인 손목의 단말기에 녹색 불빛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들어간다.

소녀의 주위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일부가 시계로 빨려들어간다.

소녀는 그 아지랑이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전원이 들어온 단말기로부터 홀로그램이 소녀의 눈앞으로 펼쳐진다.

[기기에 등록된 사용자의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시간 주입을 확인했습니다. 가까운 포탈을 이용하여 회사에서 사용자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고창에 떠오른 글을 멍하게 바라보는 소녀

그러나 잠시후 경고창 대신 지도가 떠오른다.

3차원으로 그려지는 지도는 명백하게 그녀가 알고 있는 장소를 그린다.

지도의 끝에 목적지로 나타난 곳으로 소녀의 시선이 향한다.

에이시: (입술을 살짝 깨물며) '분명 저곳은 아까 저 괴물이 말했던 회사일꺼야. 어떡하지?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저런 괴물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는데, 문을 잠궈도 맘대로 들어오는걸.'

소녀는 두려움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한다.

그러길 잠시 세계가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시간의 흐름이 정상화 되었다.

에이시: 까악!!!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지른 비명에 놀란다.

시간이 느려지기 전에 몸에게 내렸던 명령이 뒤늦게 일어났음을 깨닫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친다.

한 동안의 떨림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내 소녀의 머릿속에 떠오른건 아빠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져있던 서류 한장이었다.

저런 위험한 존재와 계약을 맺은 아빠를 떠올린 소녀는 자신의 손목에 위치한 단말기로 시선을 보낸다.

에이시: (입술을 살짝 깨물며) '아빠는... 날 위해서 저런 괴물들과 계약을 맺었어. 지금처럼 계약을 못지킨다면 아빠를 해칠지도 몰라'

소녀는 회색인간이 자신에게 소리쳤던 말들을 떠올린다.

짜증나는 얼굴로 고개를 흔든다.

에이시: (입술을 살짝 깨물며) '아빠가 그랬어, 계약서만 파기된다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가야해. 내가 아빠의 계약서를 찾아서 파기해야만해'

소녀는 이내 단단히 결심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이 현관을 향해 돌아간다.

이윽고 발이 떨어지며 걸어나간다.

Chapter 2(골목길)

Chapter 3(포탈홀)